

6. 동헌(東軒) 터에 얹힌 이야기들⁹⁾

◎ 설움 받던 죄인(罪人)이 어느 날 사또가 되어

◎ 동헌(東軒) 거쳐 간 목사(牧使) 3백 명, 많은 사연 남겨 …

제주 동헌(東軒)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수령(守令)이, 일제 때와 해방 뒤 3년 동안은 지방장관이 있어 최근의 30여 년을 제외한다면 줄곧 제주도 정사(政事)의 총본산이었던 곳이다. 고려의 관리가 파견되면서부터 1948년 도청(道廳) 청사가 소실될 때까지 적어도 8백여 년 동안 섬의 모든 정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동헌 터는 제주도의 역사상 가장 긴 관장(官長)의 정청이 있던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 관부(官府) 뿐 아니라 도내에서는 어느 지역 보다는 많은 관아가 집중되어 있던 곳이기도 했다. 그만큼 이곳은 많은 이야기를 안고 잠들어 있다고 할 것이다.

9) 『한라일보』 제30호 (1989. 05. 27).



! 애인(愛人)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간 홍랑(洪娘)의 무덤(애월읍 금덕리)! 그 옆은 원혼(冤魂)을 달래려고 목사(牧使)가 되어 돌아온 조정철(趙貞喆)이 세운 비련(悲戀)의 묘비(墓碑).

정사(政事)의 총본산

이 동헌을 거쳐 간 수령을 보면 조선시대 이후에는 「선생안(先生案)」(역대 관장의 명부), 『읍지(邑誌)』 등이 보존돼 있고 그밖에 많은 기록들이 있어 거의 전원을 알 수가 있지만 고려 때는 그 중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1161년(의종 15) 최척경(崔陟卿)이 탐라령(耽羅令)으로 도임하면서부터 고려가 멸망한 1392년까지 관관(判官)·만호(萬戶)를 포함해서 고려의 관리는 6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실체는 훨씬 더 많은 관리들이 다녀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73년(원종 14) 여원(麗元)연합군이 삼별초(三別抄)를 진압한 뒤로는

처음에는 초토사(招討司)를, 나중에는 달로화적총관부(達魯花赤總管府)를 두면서 원(元)나라는 백년 가까이 제주도를 직접 지배하게 되는데 이들의 총관부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한 전거가 없다.

21명이 동헌(東軒)서 운명

근세 조선이 건국하고 일제에 의해서 합병될 때까지 즉 1392년부터 1910년까지 1백19년 동안 이 동헌을 거쳐 간 수령(관관 제외)은 모두 2백90여명¹⁰⁾에 이른다. 이때 목사의 임기는 2년 반(30개월)이었지만 실제 재임기간은 한 사람이 평균 1년9개월 꼴이 되는데 이것은 많은 목사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들 가운데 파면되거나 의금부(義禁府)에 압송돼 간 사람이 68명이나 되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동헌에서 재임 중 사망한 목사도 21명(7%)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는 선조(宣祖) 때(1592~1599)의 목사 이경록(李慶祿)¹¹⁾이 있는데 그는 재임 중 임진란과 정유재란을 만나 부친상을 당해도 떠나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묶여 있다가 마침내 동헌에서 운명했다.

성종(成宗) 때(1490~1495)의 목사 이종윤(李從允)은 선정으로 도민의 칭송이 높았던 사람이다. 임기가 만료되어 떠나려고 하자 양효손(梁孝孫) 등 3백여 명이 조정에 유임 진정을 올려 그대로 재임하게 되었는데 결국 동헌에서 생애를 마치니 도민들이 더욱 애석하게 생각했다.

10) 신문에는 2백10여명이라 되어 있지만 필자가 2백90여명으로 수정함.

11) 신문에는 ‘이경록(李景祿)’이라 되어 있다. ‘이경록(李慶祿)’으로 바로 잡음.

기구(崎嶇)한 운명

동헌에 얹힌 허구 많은 얘기 가운데서도 가장 희한한 것은 30년 가까이 오직 죄인으로 설움 받던 한 선비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또 [목사]가 되어 북치고 나팔 불며 나타난 이야기다. 그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은 순조(純祖) 때의 이름 높은 대신이요, 문인으로 알려진 조정철(趙貞喆)이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에 일찍이 과거에 합격했으나 반대파의 집권으로 벼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침내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가 제주목(濟州牧)에서 귀양을 사는 동안 홍윤애(洪允愛)라는 처녀를 알게 되고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



! 홍의녀지묘비(애월 유수암리) | 1811년 제주목사로 도임한 조정철이 과거 제주 유배 시절 자신을 위해 순절한 홍랑(홍윤애)을 추모하며 세운 비. 후면에 자신이 직접 지은 비기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비운의 사건이 다가왔다. 정적(政敵)인 김시구(金蓍耆)가 제주목사가 되어 도임한 것이다. 그는 조정철의 죄목을 찾아 아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홍윤애를 끌어다 동헌 마당에서 국문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안 홍랑(洪娘)은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고 조정철에게 누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자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국문한다고 목사의 비리를 강력히 항변했다.



! 홍랑의 묘소(애월 유수암리) ! 묘소는 원래 제주시 전농로(삼도1동)에 있었는데, 1936년 이곳에 제주공립농업학교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홍랑 묘소 곁에는 그의 외손자인 박규팔의 묘소가 함께 자리 잡음.

가냘픈 여자였으므로 쉽게 꼬투리를 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목사는 더욱 화가 치밀어 규격에도 없는 장구를 동원,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거둬들인 고문을 건디다 못한 홍랑은 마침내 이 동헌 뜰에서 비통한 최후를 마쳤다.

비련(悲戀)의 홍랑비(洪娘碑)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을 보면 홍랑이 죽어 상여가 나가는 해로성(薤露聲)을 들으며 그는 만약 살아 돌아간다면 꼭 이 원혼(冤魂)을 달래줄 결심으로 시(詩)를 읊고 있다. 이 사건은 조정에 알려져 김시구 목사는 의금부에 붙들려가 처벌을 받고 파면되었으며 조정철은 조사 결과 별 혐의가 없어 정의(旌義)로 이배(移配)되었다.

그 뒤 조정철은 추자도로 이배되었다가 순조가 즉위한 뒤에 귀양에서 풀리고 1811년에는 제주목사가 되어 도임한 것이다. 29년의 긴 곤욕(困辱) 끝에 얻은 영광이었다.

목사로 도임하자 조정철은 공식행사를 제쳐두고 홍량의 무덤을 찾아 한없이 통곡했다. 홍량의 무덤은 제주시 한내 동쪽에 있었으나 농업학교 신축공사 때 옮겨져 지금은 애월읍(涯月邑) 금덕리(今德里)에 잠들고 있다. 지금도 무덤에는 홍량의 원혼을 달래는 시와 함께 조정철이 세운 비(碑)가 비련의 사연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어릴 때의 원한을 품고 도임한 목사, 어린 자식과 젊은 소실을 두고 가 평생 연민하다가 죽은 늙은 목사의 이야기 등 동헌에 얹힌 사연은 많지만 지면 관계로 여기서는 더 얘기할 수가 없다